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JUNE
2014
VOL.26
senior.chosun.com

탐댄스를 추는 남자는 멋지다
나이 든 탐미주의자의
섬세한 취향



ROGER DUBUIS

HORLOGER GENEVOIS

PANERAI.COM

지중해, 1940년대. 수중훈련을 마치고 올라온
이탈리아 해군 잠수 특공대원 손목에 채워진 파네라이 수중 나침반



HISTORY AND **HEROES.**

LUMINOR MARINA 8 DAYS (REF. 510)
AVAILABLE IN STEEL AND RED GOLD

현대 본점 2F 02-3449-5922 신세계 본점 B1F 02-778-7870 신세계 센텀 2F 051-745-1350 갤러리아 EAST 1F 02-512-6088
파네라이 제품은 위의 공식 매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PANERAI
LABORATORIO DI IDEE.



〈시니어조선〉· 캐나다와 함께하는 ‘꽃중년 여행’ 이벤트

마음속 버킷리스트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이라던가요. 가까운 미래인 2014년, 이루고 싶거나 체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번번히 못했던 신희여행을 보상해줄 만한 리마인드 허니문 혹은 인생의 오랜 지기들과 함께 떠나는 트레킹을 꿈꾸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응모해서 〈시니어조선〉· 캐나다관광청과 함께 그 바람을 이뤄보세요.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인종, 문화가 어우러진 캐나다는 오염되지 않은 수려한 대자연과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가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여유롭고 품격 있는 낭만 여행지로서 많은 이들이 죽기 전 꼭 다녀와야 할 버킷리스트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향 도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설명이 필요 없는 황홀한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간직한 로키의 본고장 알버타 주, 경이로운 나이아가라 폭포와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가 자리한 온타리오 주로 떠나는 **꽃중년 여행**의 기회를 잡으세요. 사연 공모를 통해 세 팀에게 캐나다 **리마인드 허니문** 또는 **로키 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대상	만 44세 이상의 건강한 심신을 지닌 한국 국적의 액티브 시니어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신청 방법	〈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newskorea@ctc-cct.ca 우 편 접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사 구관 3층 〈시니어조선〉 편집부 (우 100-756) (우편물 하단에 '꽃중년 여행 응모' 표기)
여행 지역	리마인드 허니문 (두 지역 중 택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온타리오 주 로키 트레킹 알버타 주
여행시기	2014년 6월 ~ 10월 중
신청기간	2014년 4월 1일 ~ 6월 5일
당첨자 발표	2014년 6월 20일 〈시니어조선〉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지원내역	왕복항공권, 호텔, 식사(부분적으로 제공) 및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행기는 〈시니어조선〉에 게재됩니다.
기타사항	리마인드 허니문은 커플로 응모 가능하며, 로키 트레킹은 지원자 포함 최대 3명의 꽃중년까지 동반 여행 가능. 리마인드 허니문과 로키 트레킹 중복 지원 가능

문의 캐나다관광청 02-733-7740 여행상품 문의 02-728-8610

협찬 브리티시컬럼비아 관광청(www.helloBC.co.kr), 알버타 관광청(www.travelalberta.kr), 온타리오 관광청(www.ontariotravel.net/kr)



Inside

VOL.26 JUNE 2014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시니어조선>

08 This Man

동양북스 김태웅 대표

고교 중퇴 후 구두닦이, 껌팔이 생활을 전전하다
40대 초반 출판사 대표로 극적 변신에 성공한 남자.
그는 이 모든 성공을 이끈 건 다름 아닌
'태도'라고 말한다.

10 Hobby

Shall We Tap-Dance?

탐댄스란 얼마나 매력적인 춤인가, 춤추는 남자란
원래 멋진 법이지만, 탐댄스를 추는 남자는 그보다
훨씬 더 멋지다.

12 People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이아말로 성공한
중년이라 할 만하다. 사는 게 행복하다는 남자들에게
물었다. 당신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14 Art & Life

나이 든 탐미주의자의 섬세한 취향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 남성적인 그림을 선보인
경채 정선은 말년에 이르러 '초충도'와 같은 섬세한
작업에 몰두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사물에
주목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16 Liquor

내 손으로 직접 담그는 약술

피로에 지친 몸을 살뜰히 달래는 데 술만 한 게 없다.
내 손으로 직접 빚은 특별한 약술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자.

18 Infop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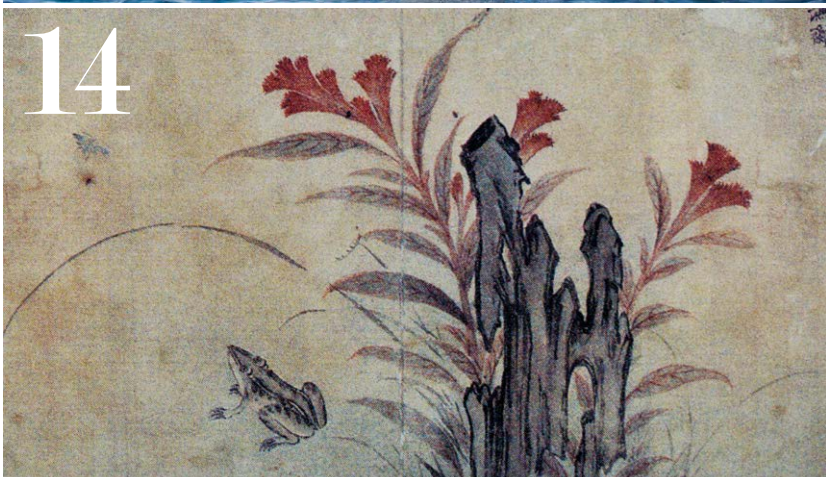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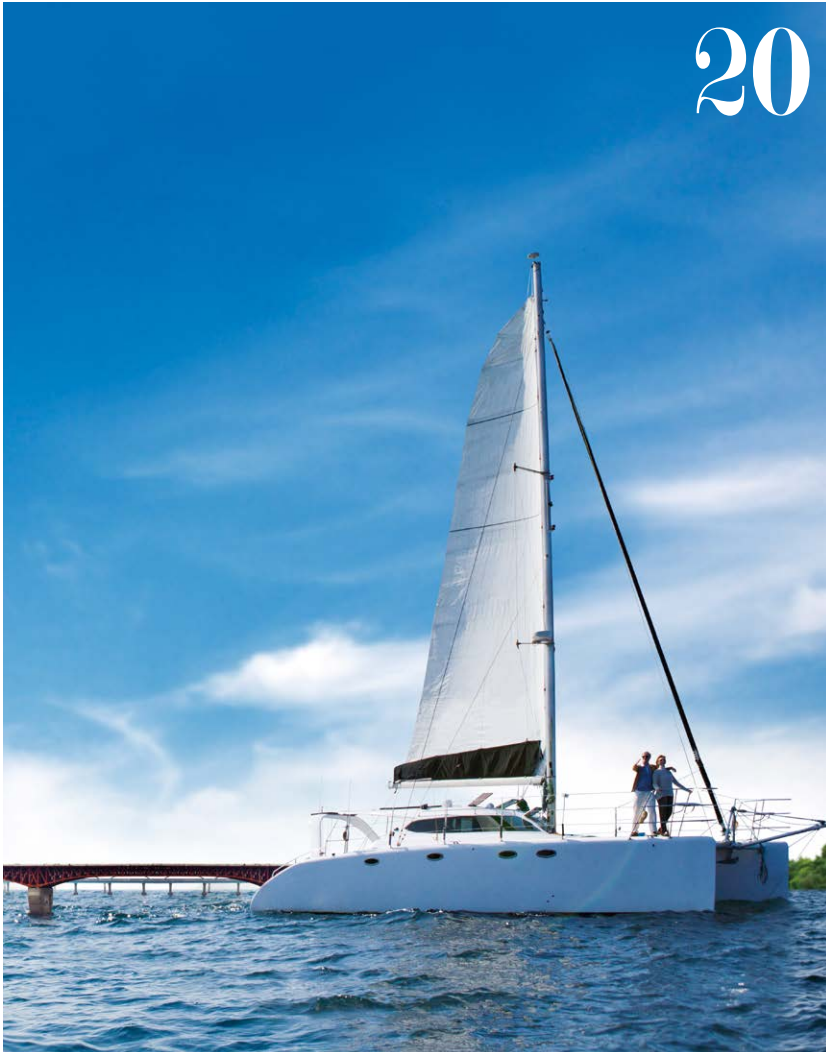
설탕은 왜 독인가? 외

설탕이 몸에 그다지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로울 수 있다.

19 Living

전통 기술로 완성한 혁신적인 가구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이는 롤프 벤츠. 반세기 동안
진화해온 롤프 벤츠의 장점을 모두 조합한
'롤프 벤츠50' 소파에 대하여.



20 Leisure

요트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멀게만 느껴졌던 요트가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요트의 대중화를 이끄는 팰리스 요트 클럽이 고가의
요트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21 Finance

내 몸에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법

넉쳐나는 수많은 연금 상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본다.

22 Essay

눈이 구백 낡

시니어 전문 포털 사이트 '유아스테이지'에서 활동하는
한 시니어 리포터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자꾸만 빼각거리리는 몸과 마음에 대해 썼다.

23 Joy of Life

배움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즐거운 인생을 위한 '앙코르 스킵' 6월 강좌.

24 Event

2014 골든라이프페어

지난 5월 중순 406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2014 골든라이프페어'가 열렸다. 많은 시니어의
주목을 받은 행사 이모저모.

25 Relaxation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호텔 패키지

이 계절을 즐길 만한 특별한 곳? 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엠블호텔 여수, 도심 속에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엠블호텔
킨텍스의 시즌 패키지에 주목하자.

26 Bulletin

이달의 정보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에서 생인을 위한 공간
'젠폴'을 새로 단장했고, 인피니가 침대계의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바이스프링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 밖에 알아두면 유익한 소식들.

COVER

로저드뷔(Roger Dubuis)의 엑스칼리버

컬렉션은 전사의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로저드뷔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아더 왕의
명검인 엑스칼리버를 나타내는 검(劍)형 사침과
분침, 트리플 러그, 플루티드(fluted) 베젤,
강렬한 로만 인덱스는 엑스칼리버 컬렉션만의
특징. 특히 표지에 소개된 '엑스칼리버 스켈레톤
더블 플라이нг 투르비용(DBEX0395)'은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 위에 스켈레톤 무브먼트를
디자인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투르비용을
선보인다. 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일 뿐 아니라
로저드뷔 매뉴팩처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한다.
문의 02-3449-5914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발행처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k49@naver.com
C.영상미디어 C.영상미디어
사진 디자인 박수연 swimingb@naver.com
미술교정 최귀열 gwiyeol61@hanmail.net
교열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02-724-7864
재무 senior@chosun.com
대표 메일 @seniorchosun
트위터 www.facebook.com/
페이북 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출력 아이덴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광역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빌딩 지역
독자들에게 조선일보와 함께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잡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08 This Man

WRITER 박스권
PHOTOGRAPHER 장문주(오영심미디어)

동양북스 김태웅 대표 운명을 움직인 집념의 사나이

한동안 김태웅 대표의 SNS 상태메시지 칸에는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흔한 말은 그러나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충분히 짐작케 했다.

10대 시절 구두닦이, 껌팔이 생활을 전전하다 40대 초반 출판사 대표로 극적 변신에 성공한 남자.

그런 다음엔 고등학생으로 돌아가 독하게 공부한 남자.

전교 1등을 거머쥐더니 이후 보란듯 명문대 졸업장을 따낸 남자.

그는 이 모든 성공을 이끈 건 다름 아닌 ‘태도’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세요?” 사람들이 김태웅(58) 대표에게 가장 많이 한다는 질문이다. 그럴 때마다 김 대표는 “내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그렇다 한들, 성공한 출판사 대표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무렵 학력이 고교 중퇴라는 것을 알리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가 어디 쉬웠을까. “그동안 남들은 내가 당연히 대학을 나온 줄 알았지. 외국어 서적 전문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더욱이... 커밍아웃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주변에서 많이 놀라더라.” 하지만 그는 잠깐의 부끄러움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다. 마흔여덟의 나이에 고3으로 돌아가는 일에 오히려 설렘을 느꼈다는 그. “할리데이비슨의 엔진 소리 같은 게 자꾸만 가슴에서 나오려는 것 같았다”고.

고교 중퇴생이 출판사 사장이 되기까지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열여덟 소년, 그는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고교 중퇴의 고배를 마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았다. 지하철 껌팔이, 구두닦이는 물론이고 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구워 팔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성격이 낙천적인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은 내 외모가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웃음), 예전엔 싸움꾼이었다. 건강했고, 힘

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게다가 친구도 많았으니 별로 걱정할 게 없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졸 학력으로는 취직조차 쉽지 않았으니, “결국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조그만 장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돈은 무슨 일을 해서든 벌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껌팔이나 구두닦이는 나의 바람직한 직업상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출판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못 배워서인지, 출판사가 어떤 곳일까 궁금했다”는 김 대표는 한 대형 출판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등지를 틀게 된다. 그때 이미 서른이 넘는 나이였다. 웬만한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은 ‘알바생’이었던 그는 매일 4만 부의 책이 들고 나는 그곳에서 정성없이 책을 포장하고, 날랐다.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알바생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사정이 달랐으니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정직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지계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그 자체를 일이라니 놀이로 생각하려 애썼다.” 그런 와중에도 책을 무척 좋아한 김 대표에게 그곳은 순간순간 ‘진짜 놀이터’가 돼주기도 했다. 늦도록 창고에서 책을 읽다 창고문이 잠기는 바람에 밤새 간혀 있었던

적도 여러 번이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연말 회식 때였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례적으로 알바생인 내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자존심이 있어 ‘정직원이 되고 싶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 말을 돌려 ‘주말 당직을 서고 싶다’고 했다. 내 편엔 용기를 내 어렵사리 한 말이었는데, 당시 상관이 ‘뭘라고? 다시 말해봐’ 하더라. 그때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려던지, 그간 자신감 하나로 버티던 내가 그 순간 모든 자신감을 다 잃었다. 그게 너무 창피했다.” 다시 ‘주말 당직을 서고 싶다’고 말했을 땐 눈물이 다 났다는 그다.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한을 그때 새삼 절감했다고. 그러나 이 순간은 그에게 확실한 기회가 됐다. 아르바이트 1년여 만에 정직원으로 승격한 것.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곳에 취직할 수 없겠다 싶었다. 그래, 견뎌보자. 뿌리부터 다 배워 나중에 기필코 출판사 사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곳에서 7년간 일하며 도서 제작 및 관리, 영업 등을 익힌 김 대표, 일하는 과정에서 그의 집념은 빛을 발했다. “영업 당시 내 별명이 ‘헛장갑’이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서점에 있는 책을 다 닦는다고, ‘하루 이를 저러다 말겠지’ 했지만,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자 서점

사장님들이 나를 무척 좋아했다. 우리 파트 매출은 자연히 높아졌고.”

7년 후 독립한 김 대표는 작은 외국어 서적 전문 출판사를 시작으로 동양북스까지 인수하게 된다. 마흔이 조금 넘는 나이, 그는 그토록 바라던 ‘사장’이 됐고, 지난 19년 동안 동양북스는 그의 지휘 아래 차근차근 성장해왔다.

인생 최고의 성취는 바로 ‘자신감’

여기까지 보자면 김 대표의 인생은 극적인 성공이었고, 또 이른 성취였다. 그 자리 그대로 안착해도 좋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스스로에 대한 자극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고등학교로 돌아간 그는 총기 넘치는 10대 학생들과 겨뤄 전교 1등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후 성균관대 경영학부에 입학하면서는 “과에서 3등을 두 번이나 했다(웃음)”고, 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나이 먹었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흔한 말, 그 말이 맞다. 용기와 집념만 있다면 말이다.”

선이 가까운 나이에 시작한 대학생활은 어땠을까. 아들보다 어린 학생들과 교감하기가 결코 쉬웠을 리 없다. “젊은 친구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메우기 위해 그간의 나 자신을 다 버려야 했다. MT도 안 빼놓고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더니 나중에는 의식도 못할 만큼 동화됐다. 소통이 되더라. 요새도 아들보다 어린 녀석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내게 ‘형’, ‘형’ 하니 우리 직원들이 놀랄 때가 많다(웃음).” 이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 후 그는 본의아닌 ‘유명세’를 얻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7년여 전부터는 학교, 기업, 군대, 재향원 등지에서 강연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극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대체로 멈춰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었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새벽의 미명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지 않나. 어둠을 거쳐야 새벽을 맞을 수 있다. 지레 짐작으로 포기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정과 집념, 행동과 실천, 이 같은 태도가 운명을 움직인다고 믿는다.”

그런 김 대표는 말한다. 지난 삶을 되짚어봤을 때, 인생 최고의 성취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감을 회복한 일이라고, “성취는 결코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과 공부를 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 만약 내게 회사나 돈이 없다면? 그렇다면들 나는 자신감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역경을 통해 내가 얻은 건 바로 자신감이다.”

어깨 : 3.18Kg
각 영역에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코트 스프링 코어 매트리스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몸통 : 32.53Kg
세계최고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갖춘 베이스슬랫과 정력조절 포인트가 척추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머리 : 3.05Kg
오래 사용해도 패인현상이 없는 HR*폴딩룸 매트리스가 변형없는 쿠ше성을 제공합니다

팔뚝, 손 : 2.85Kg
분리형 트윈드가 작은면적에도 공기 순환으로 쾌적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hülsta는 당신의 몸 하나 하나를 기억합니다

독일 기술이 선사하는 품격있는 수면 개별 맞춤 Sleeping System

밀창에 쇠붙이를 붙인 구두를 신고 바닥을 경쾌하게 두드리며 추는 춤, 탭댄스(tap dance). '클로그(clog)'라는 아일랜드 민속춤이 미국으로 전해진 뒤 흑인들의 춤과 섞여 탄생한 탭댄스는 1920년대 재즈의 유행과 함께 성황기를 맞는다. 탭댄스는 쇼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고, 그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탭댄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은 1940년대, 그러나 당시 탭댄스는 극소수 전문가들의 소유였다. 그러다 10여 년 전부터 대중적으로 조금씩 붐이 일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탭댄스 인구는 3000~4000명 수준. 이중 40대 이상의 중장년은 2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탭댄스를 추는 사람이 아직 그만큼 귀한 셈. 이 같은 '희소성'은 탭댄스의 주요 가치이기도 하다. '블루노트 탭댄스 스튜디오'의 장광석 대표는 말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탭댄스는 대중적인 춤 장르가 아니다. 에어로빅이나 재즈댄스와는 다르다. 탭댄스를 잘 추는 이는 그만큼 유니크한 맛을 풍긴다." 탭댄스의 또 다른 매력은 춤과 소리의 결합이라는 점. 장 대표는 "탭댄스는 춤이기도 하고 음악이기도 하다"며 "탭을 악기처럼 연주해 음악 세션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한다. 더욱이 탭댄스는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가요부터 재즈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춤자 음악... 유니크한 멋 풍겨

탭댄스를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리듬감이나 운동신경이다. 이 같은 요소에 따라 개인 편차가 큰 게 사실. 하지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장 대표는 조언한다. "중요한 건 즐기려는 자세다. 리듬을 모르겠다, 발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인다. 순서가 헷갈린

다 등의 어려움 때문에 초반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 고민만 넘기면 오래 재미있게 탭댄스를 출 수 있다." 평소 안 쓰던 관절을 사용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낯선 몸짓과 발짓을 한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대체로 3개월 정도를 조금 단계로 보는데, 이때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 기본 발 모양과 동작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 노래에 맞춰 안무를 익히면서 탭댄스의 재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말한다. "해외에는 일흔이 넘어서도 탭댄스를 추는 사람이 많다. 일각에서는 나이 든 후 탭댄스를 추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바른 자세로 추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외려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탭댄스는 다리만 움직여서 하체운동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완벽한 전신운동이다." 장 대표는 탭댄스의 매력에 대해 백 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며 영화나 뮤지컬 속 댄서의 모습을 즐겨볼 것을 권한다. '싱잉 인 더 레인'의 진 켈리 외에 '톱 핫'의 프레드 아스테어, '백야'와 '승리의 탭댄스'의 그레고리 하인즈, '리버댄스'의 마이클 프레들리 등이 명인으로 꼽힌다.

Shall we Tap-Dance?

영화 '싱잉 인 더 레인'의 진 켈리가 우산을 접어든 채 빗속에서 춤을 추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 탭댄스란 얼마나 매력적인 춤인가.

춤추는 남자란 원래 멋진 법이지만

탭댄스를 추는 남자는 그보다 훨씬 더 멋지다.

INTERVIEW

탭댄스에 빠진 남자

구철회 사진작가

"여덟 살 즈음 TV로 본 흑백영화에 한 배우가 탭댄스를 추는 장면이 나왔다. 그 낯선 장면은 매혹적이었다. '탭'이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어릴 적 작은 추억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탭댄스를 취해보겠다고 결심했다." 시간 여유가 없던 젊은 시절에는 탭댄스를 꿈도 못 꿔다. 구철회(54) 씨. 그는 천이 넘어 처음 탭슈즈를 신었다. 오는 7월이면 그의 탭댄스 경력도 만 3년이 된다.

지난 3년간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서초동 탭댄스카페 '이지투탭'을 찾아 연습에 매진했다. "어려운 춤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올 때마다 손수건을 2개 정도 적시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크다." 요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Put the blame on me'에 맞춰 안무 연습에 한창인 구 씨. 영화 '셀 위 댄스'의 주인공처럼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스텝을 밟아보곤 한다고.

물론, 구 씨도 처음에는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았다. "몇 번이나 이지투탭을 찾아 탐색(!)했다. 선뜻 시작하기가 두려워 기웃거리는 시간이 길었다. 그러다 얼마 지나 용기를 냈다. 어려운 춤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우니 더 도전해보아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스스로를 '몸치'로 칭하는 구 씨는 당시 개인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어려웠다는 그는 '10초간 액션을 취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닌데 3~4분 분량의 노래 한 곡을 어떻게 채울까' 까마득했다고. 하지만 두 달 뒤 그는 보란듯 한 곡의 안무를 완성했다. 그의 첫 완성곡은 트로트 '무조건'. "이걸 성공하고 나니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구나' 싶었다.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럼, 기타, 색소폰 등 악기 연주에도 능한 구 씨는 탭댄스의 최고 매력으로 '탭의 리듬'을 꼽는다. "탭댄스는 발로 하는 리듬놀이. 발로 드럼을 연주하는 느낌이랄까. 신발에 붙은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힐 때 나는 강렬한 소리에서 쾌감을 느낀다. 이것이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된다." 뿐만 아니다. 혼자서 독자적인 하나의 퍼포먼스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도 탭댄스만의 묘미다. 음악에 맞춰 스스로 안무를 짤 수 있으니, 아울러 구 씨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 댄서와 무대에서 어울리며 한층 젊어지는 느낌을 얻기도 한다.

탭댄스는 운동효과도 높다. "헬스 같은 건 재미가 없어 하지 않는다"는 구 씨는 탭댄스를 하면서 자연히 스트레칭도 겸하게 돼 운동효과를 톡톡히 얻었다고. "원래 슬개골이 좋지 않았다. 처음엔 무릎도 안 좋는데 탭댄스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너무나 하고 싶어 꾸준히 하다 보니 오히려 무릎이 많이 좋아졌다. 하체 근육도 많이 강화된 걸 느낀다."

그런 구 씨를 본 가족, 친구들은 하나같이 '재미있게 산다'며 부러워한다고. 실제로 탭댄스를 배워보고 싶다는 이들도 많지만, 막상 시작한 이는 아직 없다. "용기를 내라. 무슨 일이든 새로운 일은 다 어렵다.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몸짓으로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온다. 어려운 고비를 한두 번 넘기다 보면 탭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누차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 씨. 그는 지금도 꾸준한 연습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탭도 탭이지만, 생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에게 자극이 된다고 할까."

오랫동안 계속 탭댄스를 추고 싶다는 그는 유럽 등지로 배낭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거리공연을 펼치는 게 꿈이다. "그러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내 춤을 통해 각지에서 온 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 나이에 그보다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진도 여객선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2014 에어캐나다 한국취향 20주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천-밴쿠버 노선을 매일 직항으로 운행하고 있는 에어캐나다는 취향 20주년을 맞아 고객 중심의 항공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20주년 기념 비즈니스 클래스 최대 20% 할인

파격적인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를 이용해 에어캐나다의 특급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밴쿠버, LA	282만원~
토론토	291만원~
뉴욕	307만원~

※ 양복 기준, 할인 적용 이후 가격. 유류할증료, TAX 불포함.
※ 비즈니스 클래스 특가는 6월 30일 발권까지 적용됩니다.
※ 기타 도시 요금은 에어캐나다 예약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예약센터

서울 | 02-3788-0100 부산 | 051-463-7671~3
www.aircanada.co.kr / www.aircanada.com

AIR CANADA 

A STAR ALLIANCE MEMBER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한 이들이야말로 성공한 중년이라 할 만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남성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만, 그는 “어려운 게 아니다”며 손사래를 친다.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줄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습이 돼 있으니 걱정 않는다. 변함없이 오래도록 함께 좋아하는 것들을 나눌 것이다.” 한편, 그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만큼 개인적인 취미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축구와 함께한다. 회사 오너답게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그의 축구 경력은 자그마치 42년. 지금은 지역의 조기축구회장직까지 맡고 있다고.

일을 할 때도, 가족과 함께할 때도, 또 혼자만의 취미에 몰두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이 대표이사는 최근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행복이란 뭘까. 행복에도 수치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게 행복이더라. 감사의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차이일 뿐.”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시작한다는 이 대표이사.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다.

심현용 도전365 대표

인터넷·모바일 방송 제작 업체 도전365의 심현용(63) 대표는 국내 1세대 개인 인터넷 방송자기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사고 후의 상황을 생방송으로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동시접속 7만 명, 일주일 누계 접속 2000만 명의 기록을 세웠다. 심 대표는 “편파보도가 활개치는 속에서 24시간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런 심 대표의 인생 최고 가치는 바로 방송이다. 말하자면 일에 미친 사나이. “방송은 내 인생에서 거의 100%를 차지한다. 14년째 방송을 해왔고, 앞으로 죽는 순간까

지 계속할 것이다”고 말하는 심 대표가 처음 방송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된 계기는 지난 2000년, 개인 방송 솔루션이 대중화되면서부터다.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서의 라디오 방송이 그 시작이었다. “각 채팅방에서 음악방송을 하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 대부분 20~30대를 위한 방송이지, 40~50대를 위한 방송은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흔아홉의 나이, 그간 해오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이라는 일. 그러나 그 무렵 그에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궁지가 있었다. 6개월간 알음알음으로 방송 기초를 배워 40~50대를 위한 음악방송을 시작한 심 대표, 재미로 한 것이기에 1~2년 하다 끝낼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2002년 무선인터넷이 보급되자 심 대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세상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소리만 전하는 라디오에서 벗어나 영상으로, 본격적인 방송자키 생활에 뛰어든 것이다. 캠핑카를 사서 전국 곳곳을 누볐다. 2003년 대구에서 ‘슈퍼마켓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것을 시작으로 평창송어축제, 봉평메밀꽃축제 등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했다.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나 문화·예술, 축제 등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는 현재 실시간 중계방송 사이트 ‘유스트림’의 방송자키 유스트리머로 방송생활의 전성기를 맞은 상태.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방송을 보는 입장, 소비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직접 생산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나만의 독자적인 브랜드가 생긴 것 같아 뿌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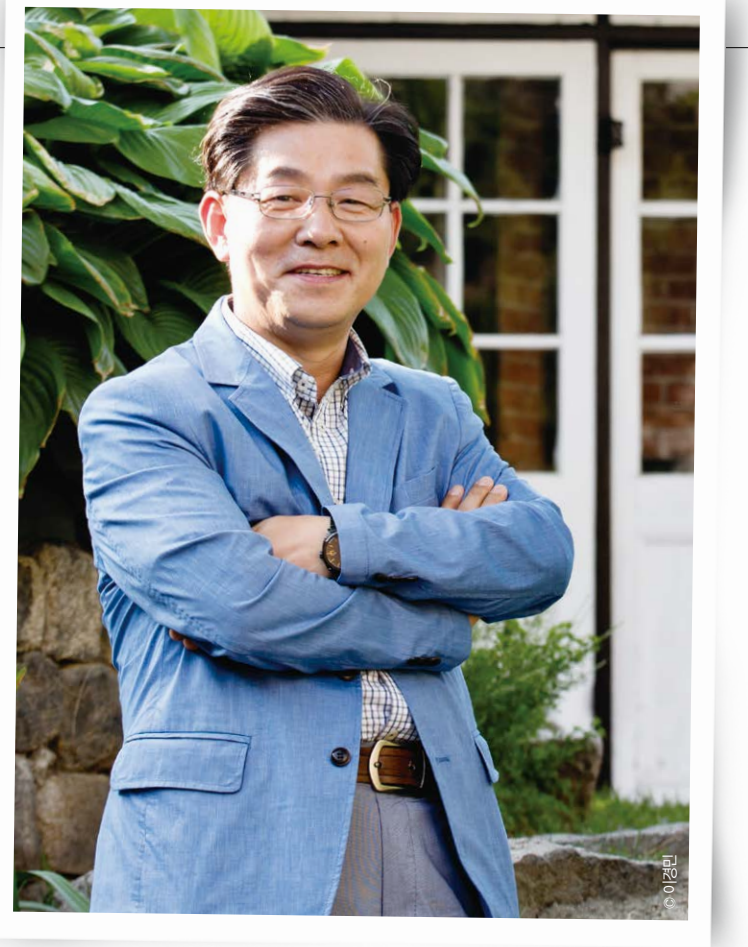
지난 14년간의 방송이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동창회 생방송’. 그는 7년 전부터 자신의 동창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봄, 가을이면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로 흩어져 있는 50년 지기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아 친구들이 늘 아쉬워했는데, 내 방송을 통해 회화를 풀 것이다. 방송을 보고 반가움에 사무친 친구들은 서로 울고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길이 순탄했던 건 아

절실한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술하게 많은 이들이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행하는 것은 결국 소수다.
절박감을 가진 소수 말이다.”



이광호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년간지 부동산 전문기자(전원주택 담당)로 15년을 재직하며 〈전원주택,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전원주택 똑똑 짓기〉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했고, 지난 2000년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업체 드림사이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이광호(57) 대표. “인생의 3분의 1을 전원주택과 함께했다”는 그는, 말하자면 전원 생활 예찬론자다. 그는 먼저 처질의 말을 인용한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다. 집이란 건 그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전원주택에 사는 것은 단순히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시에서 전원으로 향하는 것은 인생의 프레임을 바꾼다는 의미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고, 여기에 전원생활만 늘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도시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시기가 오면,
그런 것을 떨치고 진정한 자아찾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직 낮은 개념인 전원주택을 취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1995년, 당시 기사를 묶어 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이 대표는 사람들로부터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어디 사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듣게 된다. 분위기에 떠밀리듯(?)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한 게 바로 그 이듬해. 꼬불꼬불한 국도를 따라 양평에서 서소문까지 출퇴근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환경이 만족스러웠다.

“전원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히 가족 간의 스킨십이 많아졌다. 잡초 뽑거나 쓰레기 버리기 등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함께 하는 데 20년간 숙달이 됐다.” 8년 전 이전으로 이주한 그는 “내 집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쁘게 꾸민 집은 아니다. 시골은 시골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 투박하게 텃밭에 상추나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기르며 산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 대표가 지난 20여 년간의 전원생활을 통해 얻은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아 찾기’다. 진짜 나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 “우리는 도시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시기가 오면, 그런 것을 떨치고 진정한 자아찾기에 대해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자기 자신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말이다.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의 설명대로라면, 사회생활을 하며 얻은 500개의 전화번호가 100개로 줄어드는 데는 은퇴 후 1년도 채 걸리지 않는다. 5년이 지나면? 남은 인맥은 10~20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심이라는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껍질 관계망, 그 허상에 찢쩍대며 산다. 이 대표는 누차 강조한다. 인생을 ‘포맷’하라고. “기존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같은 프레임 안에서 나를 바꾸기란 아무래도 힘든 법이다. 30년 넘게 살아온 관성이 있으니 삶이 쉽게 바뀌겠나. 그러니 새로운 환경으로 자신을 던져보라. 자신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쩌면 진짜 자신의 능력, 가치가 드러날지 모른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자아찾기의 골자다. 이 대표는 전원생활을 통해 그 같은 가치를 공고히 했다고 믿는다. “나이 예순쯤 되고 보니 남들 사는 게 보인다. ‘저 나이에도 왜 저렇게 집착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 모습 보면 그저 안타깝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허상에 매달린 탓일게다. 아마도 나는 복잡한 사회에서 한발 떨어져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광우

링크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이벤트·프로모션 전문 대행사 링크커뮤니케이션즈를 이끌고 있는 이광우(55) 대표이사.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oksensior, blog.me)에는 여행·스포츠·방송·영화·이벤트 등 소소한 콘텐츠가 즐비하다. 그만큼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얘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체보다 이 대표이사가 다양한 관심사를 즐기는 방식이다. “내 삶의 가치는 가족에 있다. 사소한 무엇이든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대로 집안의 화목이 없다면 바깥에서의 어떤 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이사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스나우저 강아지 한 마리로 비교적 단순한 편. 아내는 한국무용 전공의 대학 외래교수이고, 아들은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이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족은 영화감상이나 여행, 수영 같은 공통의 취미로 오랫동안 토크를 풍쳐왔다.

“도심에서 생활할수록 가족 간 소통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통의 취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는 이 대표이사는 한 주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한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나 ‘스

파이터맨’ 같은 영화를 보러 다녔다. 요새는 여자친구가 생겨 바쁜 아들 덕분에 아내와 둘만의 데이트를 즐긴다. 지난주에는 “역린을 봤다.” 시간이 날 때면 가족여행을 떠난다. 일년에 4차례 정도는 국내여행, 몇 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에 나선다. “가장 즐겨 향하는 곳은 인천 대이작다. 여름이면 한 해에도 몇 번씩 찾곤 하는데, 지금까지 한 서른 번은 갔을 거다. 아들은 중1 때부터 다닌 그곳을 ‘우리 집 별장 같다’고 한다. 가족 모두 물과 수영을 좋아하니 제격이다. 낚시나 보트, 조개 캐기 등 체형 거리도 많아 재미있거니와 자연 그대로의 환경 때문에 힐링이 많이 된다.”

뿐만 아니다. 이 대표이사는 토요일이면 아내를 위해 요리와 청소를 서슴지 않는 다정다감한 남편이다. 회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회칼로 직접 회도 톤다는 그, 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센스만점 아빠다. 아들이 4살 때부터 ‘아빠일기’를 쓰고 있다. “어릴 때 같이 놀러 다니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녀석이 대학 들어가면서는 쓸 말이 없어지더라(웃음).” 한 가지 더. 그는 관음죽도 기른다. 아들이 태어날 해, 즉 21년 전 심은 것이다. 남들과는 다른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파 준비한 것이라고, 가족에 대한 그의 애정이 실로 대단하다 싶



정선, '독서여가도', 간송미술관 소장

국내 유명 원로 작가 한 분이 목가구, 도자기 같은 고미술을 수집해오다가 최근에는 자수를 모은다고 한다. 노대가와 자수. 어딘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결합,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면 레이스가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그 아름다움에 새롭게 눈이 트인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레이스 달린 옷이나 수가 놓인 장식물을 혐오하기까지 했던 때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섬세한 취향'은 귀족적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족과 귀족은 옷과 실내장식, 장식물, 건축 등의 분야에서 경쟁이라도 하듯 섬세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물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유로 선조의 유산을 많이 접하고 느끼며 살아왔던 왕족과 귀족은 섬세함에 대한 극

단적인 취향을 키워왔다. 로코코 양식이 유행할 때는 사치가 극에 달했고, 그 사치스러움은 프랑스 혁명을 끝으로 좀 더 고풍하고 단아한 분위기로 바뀐다. 디테일(detail)이란 무엇인가? 원래 디테일은 작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부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작고 덜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은 관심과 시선을 두지 않는 영역으로,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벗어난 귀족과 예술가들만이 이런 분야에 골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술가들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왜 젊은 시절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던 사소하거나 시시할 수 있는 사물에 주목하게 되는 것일까? 나이와 디테일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나이 든 탐미주의자의 사소함 혹은 섬세함에 대한 취향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 남성적인 그림을 선보인 그였지만 말년에는 '초충도'와 같은 섬세한 작업에 몰두했다. 나이가 들면 아주 사소하거나 시시할 수도 있는 사물에 주목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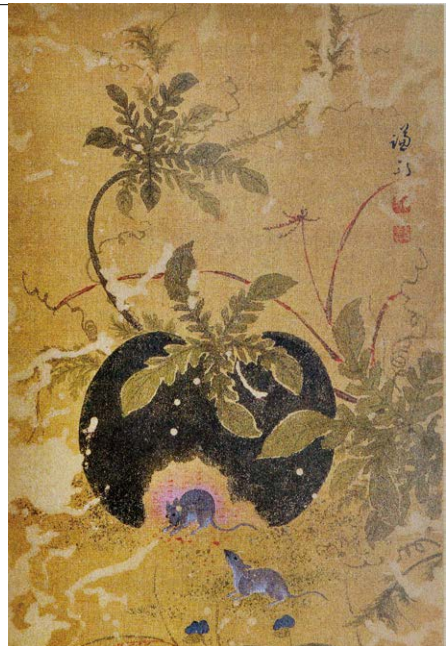
말년의 겸재가 사랑한 초충도

남성 예술가로 한정해볼 때, 나이 들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파카소가 모든 남성 예술가는 '페미닌(feminine)'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예술가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서 느끼고 사유하는 사람임에 틀림 없다. 뒤샹이 모피코트를 두르고 찍은 사진을 보면 더욱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확실히 예술가는 성(性)이 없다!

겸재 정선(1676~1759)은 여든의 나이에 초충도, 즉 꽃과 풀과 곤충을 그렸다. '금강산도'와 '인왕제색도' 같은 남성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신사임당만큼 섬세하고 더 유머러스한 초충도를 그렸던 것이다. 겸재의 대표작인 '독서여가도'(1740~1741)는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영조의 부름으로 양친 현감으로 지내던 시기, 만년의 자화상에 속하는 이 그림은 그가 왜 그런 작고 사소한 사물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방 안의 서가에 쌓인 책, 서가 안쪽에 그려진 관폭도, 그림부채, 방 뒤쪽의 푸른 잔나무 등은 모두 선비 화가로서의 자의식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이는 책 읽기를 일삼고, 서화에 뛰어나며, 자연과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땃마루에 앉아 망중한에 빠져 있는 겸재의 모습은 사물을 완성하는 그의 취미를 한껏 보여준다. 겸재는 자기 앞에 놓인 꽃과 화본의 디테일에 폭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깊이 집중해서 보았던 꽃과 나비와 벌을 독립적으로 그리게 된 것도 아마 이런 완상의 기쁨을 누린 연후에 나온 것이라라.

그래서 말년의 겸재는 시력이 약화되어 안경을 쓰면서까지 아기자기한 초충도 그리기에 몰입했던 것 같다. 그의 그림 속에는 패랭이, 맨드라미, 여귀, 국화 같은 식물과 벌, 나비, 파리 등 작은 벌레들이 짝을 이루어 결합되어 있다. 예컨대 쇠똥구리와 도라지꽃, 두꺼비와 가지, 오이밭의 개구리, 맨드라미와 병아리, 파리와 수탉, 수박을 파먹는 쥐의 결합은 얼마나 위트와 유머가 있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쳐가는 장면은 압권이다. 고슴도치가 자기 몸을 뒤집어 오이를 콧속에 꽂고 가는 모습은 얼마나 귀엽고 양증맞은지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온다. 겸재가 세세한 것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것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겸재의 초충도는 말년의 화가가 얼마나 작고 사소



정선, '수박 파먹는 쥐', 간송미술관 소장



정선, '초충도', 호림박물관 소장

하고 섬세한 취향에 몰입하고 즐겼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두고 누가 겸재를 소심하고 껄껄하다 할 것인가? 누구인들 섬세함에 관심을 갖고 몰두하는 노대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작고 사소한 사물에 대한 천착

거미 조각으로 유명한 루이스 부르주아(1911~2010)는 86세인 1997년부터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만든 조각 '거미'가 제작되어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지 3~4년이 흐른 뒤였다. 사실 부르주아는 40세가 넘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고, 70세가 다 되어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다 간 찬란한 명성의 예술가였다. 90세를 앞둔 그녀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작업만 하겠더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웬걸! 남성성기와 거세도구 혹은 여성의 자궁을 연상시키는 그로테스크한 작업을 하던 그녀가 손바느질만으로 아주 작은 인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더 이상 값나가는 무겁고 딱딱한 재료가 아닌, 입던 잠옷이나 사용하던 이불시트 같은 폐품이나 잡동사니를 재료로 사용한 것. 이를 통해 그녀는 유년시절 테프스트리를 복원하는 가게를 운영하던 부모를 도운 기억을 되살려내기 시작했다. 그 인형들은 비로소 그녀의 유년시절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행위로서 마감된 작품들

이라고 할 수 있다. 바느질로 세상의 모든 상처를 꿰매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부르주아의 인형작품은 이전 작품보다 훨씬 작아졌지만, 그 아우라는 큰 거미 조각을 압도할 정도다. 그녀는 나이 아흔이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삶과 화해를 시작할 수 있었고, 아주 작고 사소한 사물에 대한 천착은 유년의 기억을 되살리는 도구였던 것이다. 부르주아는 세심한 바느질로 인형 연작에 몰두하더니, 그 다음에는 꽃 연작을 시작한다. 말년의 꽃! 이것은 겸재의 초충도와 같으면서 다른 것이다. 둘 다 내면의 꽃을 그렸지만, 겸재가 여성적이고 관조적인 꽃이라면 부르주아는 양성적이고 역동적인 꽃이다. 부르주아가 죽기 3~4년 전에 그린 꽃 작품은 그녀가 삶에 보내는 환생에 관한 편지이자 생명에 관한 드라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꽃에 대한 루이스 부르주아의 반응이다. 말년의 부르주아는 꽃을 선물하면 화를 냈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꽃을 선물했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 부르주아는 현관 앞에 양철통을 놓고 꽃을 받으면 집으로 들이지 않고 그 안에 꽂아두었다. 카드나 꽃병은 때때로 보관했지만 꽃은 늘 집밖에 내놓았던 것이다. 꽃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런 태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꽃을 좋아하게 된다는 통념과는 상반된 태도다. 부르주아에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마도 그녀는 꽃이 주는 의미, 즉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

하라)라는 서양 정물화의 테마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는 꽃을 통해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끔찍이도 싫었을 것이다. 혹은 꽃을 보면, 그것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 부르주아는 100세까지 장수했다. 그녀는 나이 들면서 진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거대담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욱더 자기다운 일에 집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형과 꽃은 만년에 그녀가 이룩한 가장 미시적인 이미지인 동시에 가장 거대한 생명력을 담보한 예술이 되었다. 그녀는 꽃을 통해 환생했고, 그것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노년의 황홀'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본능으로의 회귀

나이 드는 것을 신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적나라한 과정으로 본다면, 노대가들은 신의 섭리가 아주 미세한 것에 미처 못 따라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 사소한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아주 작은 사물과 디테일을 즐기고 탐미하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겪고 나면 비판이든 간섭이든 타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관록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잔말 마라!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고픈 걸 한다!" 마치 나이 들면 소심해지는 한편, 더욱더 용감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겸재 정선의 초충도와 루이스 부르주아의 인형과 꽃은 예술가의 말년이 얼마나 축복이고 풍요로운지를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물에 시선을 던지자 그 작고 시시한 사물이 그들에게 엄청난 은총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사소한 사물이 주는 은총! 앞으로 다가올 육체적 늙음이며, 우리를 축복할지더라!

유경희는 대학에서 국문학, 대학원에서는 미학을 전공한 후 시각예술과 정신분석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익대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최고위 과정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유명 사립미술관아카데미, CEO를 위한 특강 등 대중 강자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예술가의 탄생》, 〈10개의 테마로 만나는 아트살롱》 등이 있다. 현재 '유경희예술창방연구소'를 운영, 예술과 인문학을 통한 코칭과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선, '초충도'



설탕은 왜 독인가?

설탕이 몸에 그다지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로울 수 있다.

설탕의 유해성과 관련해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온 낸시 애플턴은 저서 <설탕중독>에서 자신이 설탕중독자였음을 고백한다. “설탕중독으로 수년 동안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병치레가 잦아 고생하던 중, 몸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식단에서 설탕을 과감히 퇴출시켰다. 당시 나의 몸은 그 어떤 치료도 소용없는 상태였는데, 평소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자주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다. 설탕을 끊기 전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도해본 셈이다. 하지만 설탕을 끊은 뒤 생애 처음으로 상쾌한 몸 상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설탕을 줄이면 확실히 인생은 달라진다.”

설탕을 끊은 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70대 낸시 애플턴뿐 아니라, 최근 설탕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쩍 늘고 있다. 설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비만, 당뇨뿐 아니라 알차기 설탕은 자당(sucrose)을 주 성분으로 하는 감미료다. 자당은 두 개의 탄소원자가 포함된 이탄당으로 단순당인 포도당(glucose)과 과당(fructose)이 결합된 형태다. 분해효소에 의해 각각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된다. 여기서 포도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과당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로 합성되는 못된(!) 습관이 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분비된다. 과다분비된 인슐린은 오히려 혈당을 떨어뜨려 기운이 없어지고 또다시 단것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적절히 소비되지 못한 잉여 포도당 역시 지방으로 축적되어 우리 몸을 괴롭

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탓에 설당은 비만과 당뇨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장질환이나 골다공증 위험도 높다. 김경우 교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설당은 특히 위험하다”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고혈압 발병 위험이 70% 이상 높아진다”고 말한다. 게다가 “설당처럼 당지수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경우 각종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

현재 설탕 섭취량의 권고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안에 따르면, 설탕은 1일 필요 열량의 5% 미만으로 섭취하는 게 적절하다. 남성의 경우 140kcal(약 35g), 여성의 경우 100kcal(약 25g)에 해당하는 양이다. 참고로, 250ml 짜리 콜라에는 26g의 당류가 들어 있다. 여성은 콜라 한 캔만 섭취해도 1일 제한량을 초과하게 되는 셈. 이처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먹는 많은 음식 속에 설탕은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탄산음료, 과일주스, 과당시럽, 말린 과일 등에 특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다. 갖가지 가공식품류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단맛을 섭취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말한다. “단맛에 익숙한 입맛과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낸시 애플튼 역시 “우선 설탕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한 가지, 그녀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감미료로 스테비아(stevia)를 추천한다. 스테비아는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로, 열량이 없고 설탕보다 단맛이 약 300배나 강하다. 액체, 가루 등의 형태로 시중에 나와 있다.

지금 공부하러 갑니다

이맘때 한번쯤 들어볼 만한 강연 · 강좌들.

한시 속 역사 이야기

역사 속 치열하게 살다 간 인물들의 눈물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한시. **〈삼국지 인물전〉**의 저자인 한문학자
김재옥이 두목의 '제오강정', 동방규의 '소군원',
이제현의 '회음표모본', 박인량의 '오자서묘' 등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해 풀어낸다.

일시 6월 9일 개강(총 4회),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수강료 8만 원 문의 100miin(02-6959-4888,
www.100miin.com)

📱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기

손 안의 작은 카메라 스마트폰과 관련 앱 사용법을 익히고,
구도와 빛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사용법부터 스마트폰으로
초점 맞추고 노출 조정하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활용한 전시공간 만들기까지.

일시 6월 12일 개강(총 8회), 매주 목요일 오후 4~6시(주간)/ 오후 7시 40분~9시 40분(야간) 수강료 32만 원
문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사리아카데미(02-322-0768,
www.ngpa.co.kr)

🔖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파악함으로써 그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연주회 에티켓부터 오케스트라 구성, 여러 악기와 기악곡 · 변주곡 · 성악곡 등 음악 형식, 그리고 서양음악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망라한다.

일시 6월 11일 개강(총 12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수강료 6만 원
문의 강남구청 평생학습플랫폼아카데미(02-3423-5287,
www.longlearn.go.kr)

수상한 독서클럽

글은 생각의 표현이고, 표현 능력은 사고 능력과 맞닿아 있으며, 사고 능력은 독서량과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책 읽기를 통해 글쓰기를 잘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어떻게 글로 옮길 것인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무엇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글을 쓰는 과정과 방법을 연습한다.

일시 6월 9일 개강총 10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수강료 25만 원 회비 상암동미디어센터(02-330-6257, www.sungsangmadang.com/academy)

📌 6월의 두발로 학교

자연의 매력이 깃든 동강 감성법. 걷기애호가 전영일과 함께 천지의 생동감으로 빛나는 초여름의 동강을 만난다. 아침 6시 30분 서울을 출발해 동강을 걷고, 동강 중에서도 그 비경이 절정인 어귀면 강변에서 자연을 벗 삼아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이 계절의 아주 특별한 공부 겸 놀이들.

일시 6월 21일(토) 하루 수강료 10만 원
문의 인문학스쿨(050-5609-5609, www.huschool.com)

머리에 그리는
아크릴화

머리에 그리는
수채화

사진 shutterstock



전통 기술로 완성한 혁신적인 가구, 롤프 벤츠50

‘2014년 밀라노국제가구박람회’에서 트렌드에 치우치지 않는, 그들만의 앞서는 스타일을 선보인 로프 벤츠. 로프 벤츠50 스페는 반세기 동안 진화해온 로프 벤츠의 장점을 모두 조화한 모델로, 전통적인 제작 기술을 근간으로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14년 밀라노국제 가구박람회' 이곳에 출품한 롤프 벤츠50 소파는 창립 50 주년을 기념한 모델로 '과거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콘셉트'로 제작되었다. 반세기 동안 진화해온 롤프 벤츠의 장점을 모두 조합한 롤프 벤츠50 소파는 전통적인 제작 기술을 근간으로 최상의 안락함을 완성한 제품이다.

롤프 벤츠의 역사는 1959년, 숲이 울창한 독일 남부의 나골드 지역에서 처음으로 소파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1964년에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코너형 소파인 애디폼(Addiform)을 세계 최초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후 소파 제작에 필수적인 패브릭, 가죽, 우드프레임을 제작하는 공장을 독일 비징겐, 팔츠그라펜바일러, 피트스ingen에 설립했고, 이는 최고급 프리미엄 소파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현재 롤프 벤츠는 '세계 3대 소파'로 꼽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350여개 매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브랜드로 성장했다.

롤프 벤츠의 철학은 최고의 디자인, 최상의 안락함, 100% 독일산 품질이 세 가지다. 특히, 롤프 벤츠의 특화된 가치는 하이모던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다. 롤프 벤츠는 모든 제품을 자체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을 모토로 삼는다. 이 같은 모토 아래 지금껏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이 롤프 벤츠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노르베르트 베크(Norbert Beck)가 디자인한 롤프 벤츠50 소파는 지난 시간 동안 진화해온 롤프 벤츠 소파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최상급 가죽과 패브릭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 소파의 크기와 구성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취향과 제품이 놓일 공간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속 가능한 콘셉트를 유지하는 한편 변화를 추구한 롤프 벤츠50 소파를 디자인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최대한 지역성을 살리면서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이었다. 프레임에 사용한 목재(beech, 너도밤나무)는 나폴리 지역에서 벌목한 것이며, 롤프 벤츠50 컬렉션의 패브릭은 독일 직물회사에서 생산한 것이다. 그리고 최상급 천연 가죽은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은 독일 헬러 테러(Heller Leder) 사의 제품이다. 한편, 선택 가능한 발걸이가 있어 편안한 50 암체어 또한 롤프 벤츠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다.

독일이 만들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롤프 벤츠, 롤프 벤츠 소파에는 형태의 아름다움은 물론 사용자의 편안함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일인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롤프 벤츠는 한국 공식 수입업이자 독일 브랜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영동가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7850, www.yeongdonggagu.com

팰리스 요트 클럽 요트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멀게만 느껴졌던 요트가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특히, 팰리스 요트 클럽은 회원제를 통해 요트 문화의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적 업체. 고가의 요트를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트는 자산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호화 레저 스포츠일까? 수익 원대를 호가하는 가격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없는 레포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요트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 구매나 임대 등을 통해 요트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시설 확충 계획을 발함에 따라 요트는 새로운 레저 문화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천 왕산에 위치한 회원제 요트 클럽 '팰리스 요트 클럽'은 요트 문화의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적 업체. 현재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경기 화성 전곡, 전북 부안 격포,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부산, 강원 양양, 인천 왕산 등에 요트를 보유하고 있다. 문종철 대표는 취미로 즐기던 요트의 매력에 빠져 사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더 많은 사람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었다. 요트가 대중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자들의 취미라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회원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요트를 소유하지 않아도 훨씬 저렴한 비용에 손쉽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문 대표는 말한다.

팰리스 요트 클럽의 회원제 요트 클럽은 문 대표가 직접 소유하거나 빌린 요트 12척으로 전곡 회원제를 모집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회원은 연회원, 프리미엄 정회원, 법인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연회원의 경우 연간가입비는 500만 원이며 1년에 20회 사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회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내면 5년 동안 1년에 30회씩 요트를 즐길 수 있다. 법인 회원의 경우 3000만 원을 내면 3년 동안 1년에 30회, 12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30회 요트를 즐길 수 있다. 회원권을 구매하면 연회원은 4인까지 그 외에는 5인까지 무료 동반이 가능하며, 요트 출항 시 와인과 음료를 제공한다. 운항 면허가 없는 회원을 위해서 무료로 운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팰리스 요트 클럽 회원이 되면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부, 푸켓, 발리 등 해외 여행지에서도 회원권에 부여된 횃수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요트 문화를 선도하는 팰리스 요트 클럽은 대당 4~5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 명품 요트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바다 세일링의 스릴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아바카,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세일링하기 좋은 카타마라, 침대·화장실·조리 공간은 물론 외부 공간이 넓은 헌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 좋은 요즘, 가족이나 지인들과 요트 투어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1577-1850, www.palaceyacht.co.kr

내 몸에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법

노후에는 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라고 하듯 연금이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넘쳐나는 수많은 연금 상품 중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할까.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은 매년 납입금액의 400만 원까지는 저축금액의 13.2%, 즉 최대 52만8000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또한 투자기간 동안에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연금보험도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투자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없다. 이처럼 투자기간의 세제혜택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압송인 반면, 연금수령 시기에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 연금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납으로 5년 이상 불입했다면 그동안 쌓인 금액 전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연제부터인가 '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은 상품이 많아졌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물론이고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주택연금 등 연금 상품이 넘쳐난다. 심지어 복권조차 연금복권이 있을 정도니, 이제 한국은 연금사회라고 불려도 좋을 듯싶다. 그러나 이렇게 연금상품이 많아질수록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많지 않다. 일단 국민연금과 퇴직금은 제외한다. 이 두 연금은 국가 혹은 회사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도 제외한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한 연금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개인이 자율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 정도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개인 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골라야 할까?

☑ 세제혜택을 따져보아라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은 크게 투자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것과 연금 수령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기간의 세제혜택만 따지면 단연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하다. 연금저축

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지만, 투자기간 동안 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연금보험은 조건 충족 시 완전 비과세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다 크게 낮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금액이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연간 1800만 원 이상을 저축하려는 사람에게는 연금보험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한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이 많아서 나중에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의 경우도 연금보험이 낫다. 연금저축은 연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 시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 받기 때문이다.

☑ 투자대상을 선별해라

개인연금상품을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세제혜택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대상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예금부터 주식형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상품이 매우 다양하다. 즉 주식에 100% 투자할 수도 있고, 해외채권에 100% 투자할 수도 있으며,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에 전액 넣을 수도 있다 는 뜻이다. 반면 연금보험은 상품의 다양성이 다

소 떨어진다.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주식에 일부 투자하지만 대개 그 비중은 50%를 넘지 않는다. 즉 투자자의 선택 폭이 제한된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금보장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판단은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일반적 인 경우라면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 금액과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 그중에서도 주식형(혹은 해외 주식형) 또는 해외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반면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연금보험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투자금액으로 봤을 때는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투자하려는 사람은 두 가지 상품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그 이상을 투자하려는 사람은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윤치선은 은퇴설계 전문가이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삼성증권 마케팅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교육팀을 거쳤다. 현재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금과 금융상품을 활용해 은퇴 후 소득원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 및 기고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생 100세 시대의 투자경제학〉(공저), 〈고령화시대 평생 설계 통장〉, 〈연금저축계좌〉(공저)가 있다. chisun.yoon@miraeasset.com

연금저축계좌 vs 연금보험

구분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
가입 연령	제한 없음	만 15세 이상
납입 금액	연 1800만 원	한도 없음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보험사별 상이
연금 수령 시점	55세 이후 10년 이상	45세 이후
세액 공제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납입금액의 13.2% 환급)	없음
투자 기간 과세	없음	없음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과세 · 55~69세 : 5.5% · 70~79세 : 4.4% · 80세 이상, 이연퇴직소득 : 3.3% 단,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	계약기간 10년 이상, 월납 5년 이상 불입한 경우 비과세 단 가치는 2억 원까지만 비과세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부득이한 경우 13.2%)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부과	10년 이내 계약 해지 시 이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눈이 구백냥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내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나 늙었소' 하고 알려준 것이 바로 눈이다. 돋보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꽤 오래전 일이다. 돋보기가 없으면 글씨가 뭉쳐 보이는 탓에 블로그의 글을 스마트폰으로 읽고서도 땀글은 반드시 PC를 이용해 써야 한다. 내 스스로가 불편해서 내 블로그의 글씨도 크게 키우고 글의 행도 보기 편하게 널찍한 간격을 두곤 했었다.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돋보기를 쓰고도 눈이 자꾸 불편하니 괜히 속이 상했다. 하긴 돋보기를 끼고도 바늘귀를 꿰는 것이 어려워져 바느질이며 뜨개질은 생각도 못한 것도 꽤 오래전부터다. 재작년에는 오른쪽 눈에서 날파리 같은 게 한 마리 휙 날곤 했다. 진강하시던 어머니는 백내장 수술과 초자체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눈앞에 파리가 있다면서 손으로 파리를 잡는 시늉을 하시는 증상을 보였다. 나에게 어머니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니 얼마나 걱정되던지... 어머니는 그냥 두면 실명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나도 수술을 하게 되면 어찌나 하는 마음에 병원 예약을 잡아놓고도 마음이 착잡했다. 내가 몹시 걱정할 그 증상은 바로 비문증이라고 했다. 눈앞에 날파리가 한 마리 날아다닌다고 하자 노화 증상이라며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지 않으면 괜찮단다. 시야 검사며 녹내장 검사도 이상 없고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조심하라고 했다. 며칠 전에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 쪽에서 누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데 싫어 오싹한 마음에 돌아보니 눈이 부리는 초화였다. 엇드리거나 책을 읽으면 왼쪽 눈 아래쪽에 반달 모양의 동그란 반월이 보였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반달 모양이 아주 선명했다. 평소 다니는 병원에 예약하러니 나를 봐주는 선생님께서 진료

를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단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주일 만에 진료를 받았다. 비문증인데 망막검사를 해야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안약을 넣으면 시야가 흐려보인다더니 점점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앉아서, 또 누워서 한 검사결과를 치료를 받을 만큼은 아니라는 것. 알레르기에 의한 결막염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보다 좋은 결과라서 다행이긴 했다. 평소 눈의 소증함을 알긴 했지만, 종일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에 답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답답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안심중구(眼十中九), 즉 '몸이 열이면 눈은 아홉에 해당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들 여기저기가 고장 나서 병원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다. 60년을 써왔으니 탈이 날 만도 하지. 눈 수술을 받고 나서 '사람 늙어서 좋은 것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에게 70년 넘도록 몸을 썼는데 그만하길 다행으로 여기시라고 건방지게 대꾸하던 젊은 내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칠순을 넘기고서도 이른 새벽에 등산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대장 노릇을 할 만큼 기운이 넘치는 분이였다. 친구들이 골골거린다면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밥만 먹으면 약봉지를 꺼내더라'고 하셨다. 바늘귀만 꿰어드리면 아이들 옷이며 베개며 이불 홀청을 척척 꿰맬 만큼 정정하셨다. 그랬으니 눈 수술 받았다고 들어서 좋은 것 없다는 말씀이 그저 엄살로 보였고,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기에 나는 너무 젊었다. 막상 내가 눈의 불편을 느끼다 보니 그런 어머니에게 마땅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내 모자락스러움이 마음에 걸린다. '그뻘 몰라서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용서를 빌고 싶은 심정이다.

시니어리포터를 모집합니다

시니어포털 유어스테이지(www.yourstage.com)는 50세 이상 포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니어리포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리포터는 자신의 생각이나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글로 쓰고, 작성한 원고는 유어스테이지 편집부 검토를 거쳐 포털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이 정식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매달 한 편의 글을 선정해 <시니어조선>에 기명으로 게재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리포터는 유어스테이지 회원으로서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218-6234

사진 gettyimages/multibis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배움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남들과 똑같은 무료한 삶은 이제 그만!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양코르 스쿨'을 제안한다. 더욱 즐겁고 뜻깊은 인생을 원한다면 '양코르 스쿨' 6월 강좌를 눈여겨보자.

양코르 스쿨 5~6월 개강 강좌

강좌명	기간	시간	정원	강사	수강료
제6기 나의 책 출간 (라이프저널)과정	6/24~7/24	매주(화, 목) 10:00~13:00	20명	라이프저널 전문강사	40만 원
제2기 시니어 리스타트(창업/재취업/ 귀농귀촌) 전문강사 양성과정	6/28~7/26	매주(토) 09:00~18:00	20명	양코르스쿨 전문강사	50만 원
Jumping! 강사역량 - 강의기법 노하우	6/5~6/19	매주(목) 14:00~18:00	20명	김광일 라닝사이언스코리아 대표	20만 원
시니어 보석 디자인 컨설턴트 (입문)과정	5/29~6/19	매주(목) 10:00~12:00	20명	박소현 글로벌리치 대표	20만 원
[공개 특강] 양코르 인생 '나의 작은 변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5/30	17:00~18:00	30명	박성희 KACE 부모교육 수석강사	1만 원
양코르 인생- 고품격 가족관계 프로젝트	6/11~8/13	매주(수) 16:00~18:00	20명	박성희 KACE 부모교육 수석강사	40만 원
[공개 특강] 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내버거야선 애들이, 애들 걱정은 이제 그만	5/30	16:00~17:00	30명	박성희 KACE 부모교육 수석강사	1만 원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6/11~8/13	매주(수) 14:00~16:00	20명	박성희 KACE 부모교육 수석강사	40만 원
지필묵(紙筆墨)과 고전여행	5/29~8/14	매주(화, 목) 15:00~17:00	20명	김용관 국전심사위원	30만 원
감동이 있는 영어독해 강좌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5/28	10:30~11:30	20명	장종원	무료
	6/11~7/30	매주(수) 10:30~12:00	20명	열린교회 통번역위원회 위원	60만 원

*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문의 02-3218-6246, edu@yourstage.com



사진 gettyimages/multibis

2014 골든라이프페어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축제

지난달, 406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2014 골든라이프페어'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를 위한 특별 상품전, 전문가 상담 및 특강,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나흘간 열린 행사 이모저모.

지난달 8일부터 '2014 골든라이프페어'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렸다. 406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이번 행사는 조선일보 섹션 매거진 <시니어조선>과 현대백화점, 시니어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공동 주최한 것으로 시니어를 위한 특별 상품전, 전문가 상담과 특강,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0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골든라이프 특별 상품전에는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생활용품 등 시니어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이 선보였다. 천연 면 소재 제품, 안마의자, 건강 신발 등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멋스러운 감각도 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은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만 원 이상 구입할 경우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11층 하늘정원에는 건강 및 금융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가능한 '골든라이프 상담관'을 열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며, 평소 궁금했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골든라이프 랙츠런 특강'의 경우 개그맨 김종석(자기계발 특강-100세 시대의 나)을 시작으로 서강대학교 김미라 교수(안에서만 열리는 문, 마음),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2014 부동산 전망),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고통의 병 알레르기)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미라 교수는 '85세 이상은 노인'이라는 선입견을 없애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고,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저자로 잘 알려진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자산으로서의 기본 이해 및 관리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멋진 노후"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만큼 특강에 대한 방문객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편, 네이버의 카페 '한국 비틀즈 매니아' 주관으로 열린 '한눈에 보는 비틀즈 소장품전'은 세대를 아우르는 팝그룹 비틀즈를 추억해볼 수 있는 전시였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분해 비틀즈의 활동 시기, 이후 비틀즈가 해체된 뒤 멤버들이 각자 활동했던 솔로 시기, 그리고 비틀즈의 현재를 보여 주었다. 사진과 LP, 소품, 도서, 티셔츠, 캐릭터 등 팬들의 다양한 소장품을 통해 시대별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60년



대 비틀즈 활동 당시의 잡지와 신문, 1980년 존 레논 사망 당시 신문 1면 기사 모음, 조지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가 사인한 패티 보이드 자서전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스마트 시니어를 위한 IT 제품 체험존과 가족 초청 자서전 출간기념회, DIY 신규강좌 맛보기, 골든라이프 클럽 &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해 가족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페어 기간 중 무료 커피 제공, 골든라이프 특별 상품전 할인, 매일 선보이는 특가상품과 경품 등은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1 이번 행사 일환으로 열린 자서전 출간기념회. 시니어파트너스의 '라이프자널과정'을 통해 자서전을 출간한 이들이 가족 초청 자서전 출간기념회를 열었다. 2 4 10층 에메랄드홀에서는 특별 상품전을 통해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3 11층 하늘정원 상담관에서는 건강 및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4 제테크·힐링·건강 등 주제별로 특강이 진행됐다. 힐링 특강을 진행한 서강대 김미라 교수. 5 10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비틀즈 소장품 전시회. 음반, 잡지, 책 등 시니어의 감성을 자극하는 비틀즈 관련 소품이 대거 등장했다.

다채로운 호텔 패키지로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을!

이 계절을 즐길 만한 특별한 곳 없을까? 엠블호텔이 그 해법을 제안한다.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엠블호텔 여수, 도심 속에서 가족이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엠블호텔 킨텍스의 시즌 패키지가 바로 그것.



엠블호텔 여수 '사국사색 패키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엔 위치한 엠블호텔 여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고품격 호텔이다. 남해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엠블호텔은 세계 4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히는 여수의 오동도를 조망하며 해안도시의 아름다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상식한 해산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미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1층에 있는 '아드리아'는 오리엔탈 퓨전요리 전문 레스토랑으로, 총주방장이 엄선한 남도의 특색 있는 메뉴로 색다른 요리를 경험할 수 있다. 최고층에 위치한 '마레첼로'는 명칭 그대로 하늘과 바다를 공존하는 레스토랑 & 바로, 한려수도의 에메랄드 빛 바다를 바라보며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저녁에는 클래식한 분위기 속에서 프리미엄 위스키와 와인을 마시기에 제격이다. 6층 야외에 자리한 바비큐 레스토랑 '타블라 타블라'에서는 남해안 청정 해역의 신선한 해산물과 포도주와 허브로 숙성한 육류를 바비큐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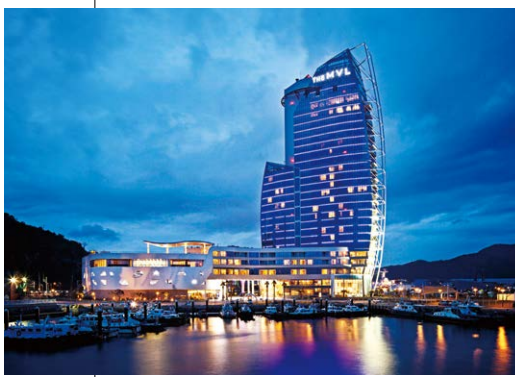
무엇보다 엠블호텔 여수의 특징은 26층 건물 중 4개 층을 차지하는 테마객실이다. 한국, 일본, 아랍, 스페인 등을 테마로 인테리어부터



객실과 호텔의 작은 소품까지 그 지역 특색을 잘 살려 꾸었다. 한국의 온돌방에 간결한 선과 여백의 미를 담은 사랑채, 일본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타다미, 화려한 아랍 스타일로 꾸민 세레제데, 유럽과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스페인의 문화를 담은 씨에스타 등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이번 시즌 엠블호텔 여수에서는 호텔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나라별 테마객실을 베이스로 '사국사색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남도길 끝에서 미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감성과 추억을 경험할 수 있을 듯하다. 패키지에는 각 나라의 테마객실 1박(2인 기준), 테마조식(룸서비스), 그 나라별 와인(전통주) 1병이 포함된다. 패키지 판매기간은 6월 30일까지, 가격은 주중(일~목)에는 27만5000원이며 주말(금,토)은 30만5000원이다.

문의 061-660-5800
www.mvhotel.com/yeo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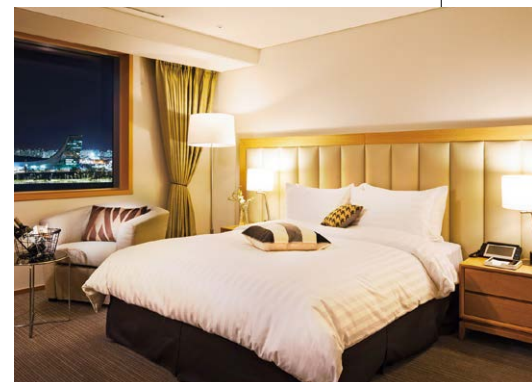
엠블호텔 킨텍스 '뽀로로테마객실 패키지'

엠블호텔 킨텍스는 로하스(LOHAS)를 꿈꾸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라 할 만하다. 총 377실 규모의 특급 호텔인 이곳에서라면 도심 속에서도 조용하고 여유로운, 동시에 호화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호수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미각을 일깨우는 웰빙 요리는 안견이다. 특히 음식 서비스는 엠블호텔 킨텍스의 자랑이라 할 만하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시니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뽀로로 레스토랑 '쿠치나M'은 라이프 오픈 키친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기농 식재료와 식감을 최대한 살린 160개의 메뉴를 선보이며, 중식 '죽림'에서는 광동요리 중심의 중국 4대 요리와 스페셜 티 체험이 가능하다. '일라고 델리'에서는 국내 최고의 파티시에가 선사하는 건강



빵과 세세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며, 로비 라운지&바 '일라고'는 라이브 재즈 선율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이 밖에 최첨단 운동기구와 시설을 도입한 풀력 있는 피트니스 클럽과 야외수영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청사초롱과 등잔, 한복의 멋고름 등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련되



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어린 손주에게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면 엠블 호텔 킨텍스의 '뽀로로테마객실 패키지'를 주목할 만하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로로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패키지는 슈퍼리어 또는 디럭스 테마객실 중 선택 가능하다. 쿠치나M 조식뷔페 이용권(성인2명, 어린이1명)과 뽀로로파크 이용권(성인2명·어린이1명, 주차권3시간 포함), 아이들이 선호하는 파비카스텔 색연필세트, 색칠공부노트, 엠블 필통 등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야외수영장 오픈 기간에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우나 이용 시 50% 할인과 F&B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슈퍼리어 트윈 31만 원, 디럭스 트윈 34만 6300원이며, 가격은 주중·주말 모두 동일하다. 패키지 판매기간은 8월 30일까지.

문의 031-927-7800
www.mvhotel.com/kintex

26 Bulletin

WRITER 박철진

BEVERAGE

프리미엄 칵테일 스타일 스파클링, 슈웬스 코스모폴리탄

1783년 탄생한 프리미엄
스파클링 슈웬스는 2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드링크. 레몬토닉, 진저에일,
그레이프 토닉에 이어 네
번째로 출시된 '슈웬스
코스모폴리탄'은 브리티시
스타일의 품격에 코스모폴리탄 칵테일
향에서 풍기는 뉴요커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덧입혀 무알코올 칵테일
스타일 스파클링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선보인다. 샴페인 버블의
고급스러움과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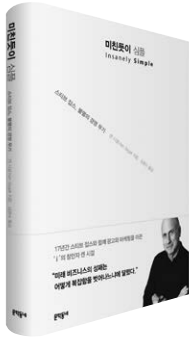


WATCH 파넬라이 2014 SIHH 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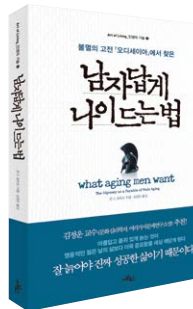
지난 5월, 이탈리아 디자인과 스위스 시계 기술의 장인 정신이 결합된 럭셔리 스포츠 워치
브랜드 오피치네 파넬라이의 2014 SIHH 프리뷰 행사가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더 스테이트 룸(The State Room)'에서
열렸다. 파넬라이는 이번 프리뷰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과 기술, 전통이 투영된 탁월한 기능의 새로운
라디오미르 1940 크로노그래프, 전례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탁상시계로도 활용 가능한 스피셜 포켓 워치
에디션, 새로운 엔트리 레벨 인하우스 무브먼트 P.5000 칼리버를 채용한 컬렉션 등을 국내에 최초로 선보였다. 매화
소규모 그룹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된 이번 프리뷰에는 코리아 파넬라이스티(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파넬라이 마니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도 참석해 파넬라이의 새로운 컬렉션을 체험했다. 문의 02-3449-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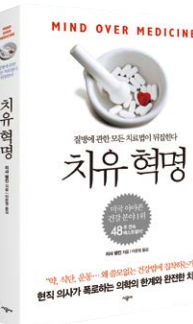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콘텐츠》
13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를
통해 대중들이 스스로 즐기면서, 그
신명으로 만들어내는 축제적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연등회의 개념과
의미를 비롯해 아시아 연등축제의
역사적 전개, 한국 연등회의 역사적
전개, 연등회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콘텐츠 연구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윤수 저, 민속원



《이친둥이 심플》
잡스와 함께 마케팅을 이끈 켄 시겔은
애플의 잇따른 혁신을 가능케 한
단순함의 11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내가 모인 굴지의 IT
기업들조차 복잡한 프로세스에 빠져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형식과
절차에 매몰된 기업들이 심플 스틱을
거머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켄 시겔 저, 문학동네



《남자답게 나이 드는 법》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겪은
수많은 역경을 오늘날 베이비 붐
세대의 삶에 빗대어 서술한다. 오직
성공을 위해 전쟁 같은 삶을 보낸 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베이비부머들은 이
책을 통해 젊은 날의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그려볼 수 있을 듯.
존 C. 로빈슨 저, 아날로그



《치유 혁명》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인간관계, 생활, 직업,
재정 상태, 창조성의 정도, 여가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 방식이 어떻게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는지 설명한 후,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귀중한 도구를 알려준다.
리사 랭킨 저, 시공사

BOOKS



빈티지 아이웨어 브랜드,
레트로스펙스
해외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레트로스펙스(RetroSpecs &
Co.)는 1870년대부터 1970년대
예술가들의 안목과 손길로 탄생한
아이웨어 프레임의 컬렉터이자
세계 최고의 아이웨어 브랜드다.
이런 레트로스펙스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성북동에
위치한 국내 매장은 LA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픈한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로, 희소가치가
높은 스페셜티와 뮤지엄,
1950~1960년대의 파일렛,
물소뿔로 만든 버팔로 혼 컬렉션 등
특별한 아이웨어를 판매한다.
문의 02-518-8872

GLASSES



리조트 내에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으로, 부부나 연인 혹은 친구들끼리 오붓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남동쪽 누사두아 해변에 위치한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는 고유의 전통 음식과 현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3452-0123

TRAVEL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 '젠풀'오픈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클럽메드 발리
리조트에서 성인을 위한 공간인 젠풀(Zen
Pool)을 새롭게 오픈했다. 현재 발리 리조트는
하모니(Harmony)를 테마로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으로, 젠풀은 공사의 총책임을 맡은
디자이너 마크 허트리치가 처음 선보인
공간이다. 웅장한 계단식 입구에 들어서면
바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건축
디자인이 돋보인다. 또한 이곳은 클럽메드

바이스프링, 팝업 스토어 오픈

매트리스, 침대 브랜드의 '롤스 로이스'로 불리는
바이스프링(VI-Spring)은 100% 최고급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빈틈없는 스프링 밀도로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국내 수입 업체인 인피니(infin)가
영국에서 탄생한 최고급 침대 브랜드 바이스프링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에서는 바이스프링 엔트리·미디엄 모델인
리갈 슈퍼브 베드, 바로넷 슈퍼브 베드, 트레디셔널
매트리스를 특별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7-6000



BED



독일 최고의 침대 브랜드, 홀스타

홀스타(Hülsta)는 1940년 알로이스 홀스가 회사를
설립한 이후 첨단기술과 장인정신을 통합시켜 세계에
가장 유명한 슬라이딩 시스템 제조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독일산 제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가구로
독일 오테슈타인, 슈타프른 지역에서 최고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홀스타의 ELUMO 2는 혁신적인
기능을 갖춘 침대 프레임으로 헤드보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아름다움, 기능, 조화, 편안함을 제공하는 ELUMO 2는
영동가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7850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www.clubmed.co.kr 02-3452-0123



자연, 문화예술, 골프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산수절경 속 궁극의 휴양

클럽메드 중국 계림

성인 128만원대부터

에어패키지(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가격)

* 모든 상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